

# 야구의 계절이 왔다... 28일 5개 구장서 '플레이 볼'

## 2026 프로야구 개막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프로야구 2026시즌이 28일 막을 올리고 열전에 돌입한다.

2026시즌 프로야구는 28일 LG 트윈스-KT 위즈(잠실구장), KIA 타이거즈-SSG 랜더스(인천 SSG랜더스필드), 롯데 자이언츠-삼성 라이온즈(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창원 NC파크), 키움 히어로즈-한화 이글스(대전 한화생명볼파크)의 2연전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팀당 144경기씩 총 720경기를 치르며 개막 2연전과 올스타전 휴식이 적후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됐다.

9월 6일까지 팀당 135경기가 우선 편성됐고, 미편성된 45경기(팀당 9경기)는 우선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될 예정이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 열리며 장소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올스타 휴식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다.

2023년과 지난해 통합 우승을 달성한 LG는 올해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LG는 올해에도 우승하면 2015-2016년 두산 이후 10년 만에 2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제패하는 팀으로 이름을 올린다.

전반적인 투타 밸런스가 좋은 팀으로 평가받는 LG는 베테랑 타자 김현수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통해 KT로 이적한 것 외에 별다른 전력 유출이 없었다. 컷팅 박해민이 FA로 풀렸으나 4년 총액 65억 원을 투자해 붙잡았다.

LG, 2016년 두산 이후 10년 만에 2년 연속 우승 도전  
아시아 쿼터 도입 가장 큰 변화... 피치클록 2초 단축  
김경문·김태형·이강철 등 계약 만료 앞둔 감독도 주목

2024년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뒤 2025년 정규시즌 4위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삼성이 LG와 함께 '2강'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종 에이스 원태인의 부상과 맏매닝의 부상으로 인한 외국인 투수 교체가 변수다.

지난해 정규시즌 2위와 한국시리즈 준우승을 차지한 한화, 지난해 후반기 추락을 만회하려는 롯데, 가을야구 무대 복귀를 노리는 KT, 김원형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반등을 노리는 두산이 '4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SSG와 NC는 전문가 개막 전 예상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지난해에도 포스트시즌 진출을 이룬 팀들이 만큼 저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최근 3년 연속 최하위에 머무른 키움은 주전 3루수 송성문을 메이저리그(MLB)로 떠나보내 여전히 하위권 평가를 받는다.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후유증도 시즌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우승 후보인 LG는 올해 WBC에 무려 7명의 선수를 파견해 변수가 가장 큰 팀이다.

올해가 계약 마지막 해인 사령탑들에게도 눈길이크다.

지난해 한국시리즈에서 LG에 밀려 우승을 놓친 김경문 한화 감독은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한국시리즈 정상을 꿈꾼다.

2019년부터 계속해서 KT를 이끌고 있

는 이강철 감독은 지난해 6년 만에 가을야구에 나서지 못한 아쉬움을 풀겠다는 각오로 2026시즌을 시작한다.

롯데가 '우승 청부사'로 영입했으나 부임 이후 2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 김태형 감독도 칼을 갈고 있다.

올해부터 아시아 쿼터가 도입돼 각 팀 전력과 개인 타이틀 경쟁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아시아 쿼터 선수는 직전 또는 해당 연도 아시아리그 소속이어야 하고, 비아시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선수 영입은 불가하다.

선수 포지션은 무관하며 신규 영입 시 지출할 수 있는 최대 비용은 연봉·계약금·특약(옵션 실지급액 기준) 및 원 소속구단에 지불하는 이적료(세금 제외)를 합쳐 최대 20만 달러(월 최대 2만 달러)다. 재계약 시 해당 선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올릴 수 있다.

10개 구단 중 9개 구단은 모두 아시아 쿼터 선수를 투수로 영입했다. 내야진 핵심인 박찬호를 두산으로 떠나보낸 KIA만 야수인 제리드 데일을 택했다.

시범경기 기간 한화의 아시아 쿼터 대만 투수 양영정은 3경기에서 12%이닝을 던지며 4자책점, 평균자책점 2.92를 작성하며 안정감을 보였다.

유일한 야수 데일은 11경기 타율 0.129(31타수 4안타)에 그쳤다.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프로야구 2025 KBO 리그 개막전 롯데 자이언츠 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올해 피치클록이 2초 단축되는 것도 변화된 부분이다. 주자가 없을 때 18초, 주자 있을 때 23초 내에 투수가 공을 던져야 한다.

아시아 쿼터를 제외한 외국인 선수는 올해 '경력직'이 대체다. KBO 리그에서 뛰는 30명의 외국인 선수 중 16명이 KBO 리그에서 뛰 경험에 있는 선수들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시 두산 유니폼을 입은 크리스 플렉센이다.

2020년 두산에서 뛰던 후 미국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했다가 올 시즌 두산에 복귀한 플렉센은 올해 세 차례 시범경기

에 출전해 12%이닝을 1자책점으로 막으며 꽤 좋은 컨디션을 자랑했다.

WBC에서 활약한 선수들도 팬들의 관심을 모은다.

류지현호 타선에서 불발망미를 휘두른 문보경(LG), 지난해 신인왕을 차지한 안현민(KT), 건강을 되찾은 2024시즌 최우수 선수(MVP) 김도영(KIA)은 타격 타이틀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한화 유니폼을 입은 강백호와 KIA에서 두산으로 이적한 박찬호, KT에 새 동지를 둔 김현수의 활약도 주목할 부분이다.

한국 최고의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는

또 한 번의 '역대급 흥행'을 기대한다.

프로야구는 2024시즌 1088만7705명의 관중을 불러모아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에는 1231만2519명이 입장해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썼다.

시범경기부터 '흥행 대박'의 조짐이 보였다.

올해 시범경기 60경기에는 44만247명의 관중이 입장해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작성했다. 종전 최다 관중 기록인 지난해 32만1763명(42경기)보다 10만명 이상 많은 관중이다. /뉴시스

## 손흥민·이강인 '밝은 미소' 흥행보호, 완전체로 담금질 돌입

3월 A매치를 앞둔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속 완전체로 담금질에 돌입한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28일 오후 11시(한국 시간) 영국 밀턴케인스의 스타디움 MK에서 '아프리카 강호' 코트디부아르와 3월 A매치 첫 경기를 소화한다.

이후 오스트리아 빈으로 이동해 4월 1일 오전 3시45분 에른스트 하펠 경기장서 '유럽 북병' 오스트리아와 두 번째 일정을 치른다.

이번 3월 유럽 원정 2연전은 오는 6월 개막하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구간으로, 최종 명단 발표 전 마지막 실전 점검의 시간이다.

월드컵 조별리그 A조에 속한 'FIFA 랭킹 22위' 흥행보호는 유럽 플레이오프(PO) 패스D 승자, 멕시코(16위), 남아프리카공화국(60위)과 토너먼트 진출 티켓을 놓고 경쟁한다.

유럽 패스 D 승자는 이번 3월 A매치 기간을 통해 체코(43위), 아일랜드(59위), 덴마크(21위), 북마케도니아(66위) 중에서 결정된다.

코트디부아르(37위)는 남아공을, 오스트리아(24위)는 유럽 패스 D 승자의 가상 스파링 상대다.

핵심 미드필더인 황인범(30·페예노르트)이 부상으로 낙마하고, 소집 직전 '에이스' 이강인(25·파리 생제르맹)이 발목을 다치는 등의 변수가 있었으나, 지난 24일 동영상 플랫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채널에 공개된 유럽 원정 영상에 따르면 흥행보호의 분위기는 밝았다.

'주장' 손흥민(34·로스앤젤레스FC)을 비롯해 황희찬(울버햄튼), 조유민(샤르자), 김민재(이상 30·바이에른 뮌헨), 백승호(29·비명업), 엄지성(24·스완지 시티) 등이 먼저 소집 호텔에 도착해 있었다.

손흥민은 소속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 FC(LAFC)에서 8경기 무득점이라는 부진에 빠졌지만, 대표팀에 합류했을 때

28일 오후 11시 코트디부아르와 3월 A매치  
4월1일 오전 3시45분에는 오스트리아 상대  
'부진' 손흥민·'부상' 이강인 등 모두 밝은 표정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의 손흥민, 황희찬, 조유민, 백승호, 김민재.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는 표정이 밝았다.

골키퍼 조현우(35·울산), 송범근, 미드필더 김진규(이상 29·전북), 측면 수비수 김문환(31·대전) 등 국내파 선수들과 홍 감독을 포함한 코치진, 지원 스태프는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떠났고, 도착과 동시에 근교의 밀턴케인스로 이동했다.

먼저 도착한 해외파들은 본진 선수단을 밝은 표정 속 악수와 포옹으로 반겼다.

부상 이슈가 있었던 이강인도 웃으며 팀 동료들을 환영했다.

월드컵을 앞둔 포지션 경쟁이란 긴장감보다는 가족 같은 팀 분위기가 조성돼 있었다.

영상 속 오현규(25·베식타시)는 본진을 반기는 해외파가 도열하기 전 운동을 하고 있다.

이에 김민재는 "시간 맞춰서 사람들, 카메라 올 때 딱 (운동한 티를 냈다)"며 "나도 예전에 다 해봤다"고 장난치며 좋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해외파 중 늦게 합류한 미드필더 이

재성(34·마인츠), 권혁규(25·카를스루에)도 밝은 표정으로 축구 팬들을 향해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최초 외국 태생 환형 선수' 에스카스트로프(23·뮌헨글라트바흐)도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며 웃었다.

홍 감독도 이동으로 지친 선수들을 위해 농담으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영상에선 덴마크 프로축구 수페리가 미트윌란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조규성(28)과 이한범(24)이 제일 마지막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훈련복이나 유니폼이 아닌 개성 넘치는 평상복을 입은 이들의 모습에 "말 타고 왔냐"고 장난을 치며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밝은 분위기 속 3월 A매치 대비 소집을 마친 흥행보호는 첫 일정인 코트디부아르전에 맞춰 다양한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된다.

##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가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인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타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커뮤니티인 친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외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시공: 운암 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공: GS건설 | (주)한원/건설 | HDC현대산업개발